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역사를 품은 자연, 용굴		
대상	중학생 20명	소요시간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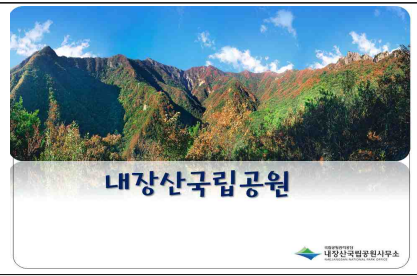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소요시간	프로그램	준비물	비고
동기유발	10'	· 반갑습니다! -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소개 -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영상실
	20'	· 내장산에 숨겨진 이야기 - 내장산 관련 동영상		영상실
주제별 해설	10'	· 미션! 보물찾기 - 내장산 탐방안내소 내 보물찾기		
	20'	· 숨겨진 비밀, 용굴이야기 - 내장산 내 용굴찾기 - 역사적, 지리적 용굴 소개	사진, 자료집	
	40'	· 나만의 실록 만들기 - 조선왕조실록 자세히 알기 - 오침안정법을 통해 나만의 실록만들기 · 나에게 쓰는 편지 -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실록만들기, 엽서	영상실
마무리	20'	· 마무리 - 내용정리 및 인사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를 품은 자연, 용굴
-------	---------------

해설 주체	장소	세부 시나리오
도입	영상실	<p>안녕하세요. 정읍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교실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기분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쁜 친구들은 없지요? 혹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p> <p>오늘 내장산에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가요? 자연 속에서 새소리도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자연환경 속 숨겨져 있는 역사! 역사를 품은 자연이야기입니다.</p> <p>제 소중한 보물은 가족인데, 혹시 우리 친구들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저처럼 가족인가요? 혹은 친구? 게임? 돈? 가지각색이지만 오늘 이곳을 돌면서 자신의 보물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오늘 탐방안내소에서 내장산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자연 속에 숨겨진 보물도 찾고, 나의 보물도 찾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 동안 함께할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 2시간정도 내장산이 품은 보물을 알아볼 저는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을 맡은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p> <p>혹시 내장산국립공원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여러번 온 친구들도 있네요. 그렇다면, 왜 내장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내장산은 한자로 안내, 감출장 이라는 한자를 써서 산 안에 감춘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의 유래도 있고요.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하여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잘 보이지 않다고 해서 내장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탐방안내소에서 내장산이 무엇을 숨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살펴볼까요?</p> <p>그 전에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 째도 안전입니다.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볼까요? 지금 친구들이 있는 곳은 영상실이고요. 바로 나가서 왼쪽과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는 나가서 오른쪽문 앞에, 소화기는 제세동기 옆과 탐방안내소 내부에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주위가 약간 어두울 수 있으니 친구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참 쉽죠!?</p>



<내장산에 숨겨진 이야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장산이 숨겨둔 보물. 함께 알아보까요?
 좋습니다. 화면의 동영상을 통해 내장산의 보물은 몇 가지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영상 시청 (10분)

전개 영상실

잘 보았나요?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장산의 보물은 무엇인 것 같나요?

내장산을 와봤다고 해도 관심 있게 살펴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꽃 이름을 안다고 해서 정말 그 꽃을 아는게 아니듯이, 내장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면 내장산을 알았다고 할 순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 관심의 시작은 꽃 이름을 아는 일이겠죠?
 오늘 본 동영상이 여러분이 내장산을 궁금해 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꼽은 내장산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오! 비단벌레, 진노랑상사화! 자연자원을 보물로 꼽은 친구들도 있고요. 내장사, 벽련암! 역사문화자원을 보물로 꼽은 친구들도 있네요. 왜 보물로 정했나요? 귀해서, 소중한해서, 가치가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겠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국민의 휴양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가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지요.

동영상을 통해 내장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았는지 ppt와 퀴즈를 통해 알아보까요?

1.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총 몇군데 일까요? 지도에 있는 국립공원을 누가 빨리 셀까! 맞습니다. 22군데로 우리 내장산을 한 번 찾아보까요? 내장산은 1971년에 8번째로 지정된 곳입니다. 2016년에 태백산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요!

2. 내장산의 숨겨진 보물을 알아볼 건데요. 자, 내장산의 자연자원인 깃대종! 무엇일까요? 진노랑상사화와 비단벌레! 진노랑상사화는 8월 여름 휴가철부터 피기 시작하죠. 비단벌레도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이구요. 비단벌레를 직접 본적이 있나요? 탐방안내소에도 있습니다!

3. 이번엔 내장산의 역사문화자원입니다. 내장사와 벽련암뿐만 아니라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최근에 역사적으로 재조명 받는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내장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신선봉 중턱에 있는 깊숙한 동굴. 용굴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 조금 있다가 자세히 이야기 해줄게요.

4. 내장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신선봉이라면, 가장 유명한 봉우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서래봉이죠. 벽련암 뒤에 병풍처럼 펼쳐진 독특한 암석은 많은 탐방객들이 꼭 들리는 곳이지요.

전개

탐방
안내소



활동사진

<미션, 내장산의 보물찾기>
지금까지 내장산에 대해 알아보는 스트레칭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실 밖으로 나가 탐방안내소 내에 있는 자신이 생각하는 내장산의 보물을 찾아서 인증사진을 찍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뽑은 종이에 적혀있는 보물도 찾아야합니다. (오소리, 너구리, 노루, 고라니, 어치, 물까치, 까치, 검독수리, 비자나무, 파랑새 등)

물론, 자신의 얼굴이 나와야겠죠?
지금부터 5분간 탐방안내소 내 내장산의 숨겨진 보물과 사진을 찍어서 이곳으로 다시 모이면 됩니다. (체험활동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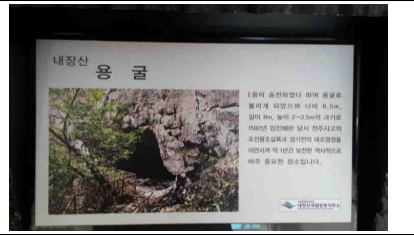
다들 모였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 사진과 뽑기로 뽑은 사진을 함께 볼까요?

전개

탐방
안내소



용굴 모형도



용굴 패널

자, 그럼 내장산이 숨겨둔 보물. 함께 알아보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친구들 앞에 보물이 있는데,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보물은 바로 제가 아니라 친구들 위에 보이는! 맞습니다. 용굴인데요. 혹시 용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눈치가 빠른 친구는 벌써 패 널을 읽고 있네요. 맞습니다. 용이 승천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지만,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혹시 친구들 이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즐겨보는 웹툰 중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과 용굴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궁금한가요? (네) 좋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니 바로 이야기해줄게요. 때는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웹툰 조선왕조실록



이순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장군! 맞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활약했던 전쟁은? 맞습니다. 임진왜란이죠. 조선이 세워진지 200년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불과 20일만에 한양까지 점령당하고 마는 아주 큰 사건이죠. 잠깐 그림을 통해 왜구가 어떻게 한양까지 20일만에 도달했는지, 침입경로를 살펴볼까요? 이곳 부산진 앞바다를 시작으로 성주, 충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금강산을 넘기도 했고요, 평양까지 진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20일동안 200년동안 지켜온 조선의 많은 문화재와 인재가 약탈의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왕의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 역사, 생활사까지 기록되어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책입니다. 왕의 기록이 담긴 역사책이니 왜구 입장에서 조선왕조실록은 더더욱 없애야하는 상황이죠.

왜구가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조선왕조실록은 어디에 보관되어있었을까요? 뒷산? 궁궐? 바로 문서를 보관하는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전국의 총 4군데 사고에 보관했었는데요. 성주사고, 전주사고, 충주사고, 한양의 춘추관사고입니다. 성주, 충주, 한양. 낫설지가 않죠? 사고는 관리를 위해 도심 가까운 곳에 설치했었는데, 아무래도 도심지이다보니 왜구의 침입경로와도 일치합니다. 한군데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왜구는 한군데 남은 이곳, 전주사고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중한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옛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두 군데의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다근처 변산에 숨기자고 합니다. 누군가는 산 속

깊숙한 곳 내장산에 숨기자고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숨기고 싶은가요? 바닷가 근처 변산! 깊고 은밀한 내장산!



변산



내장산

바로 이곳, 내장산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왜 이곳에 보관하고자 했는지 안쪽에서 보여줄게요. 따라오세요.

선조들은 바다 근처에 숨기면, 왜구가 배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 깊고 은밀하며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곳 내장산이죠.

내장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단풍인가요? 그리고 내장, 장기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산세가 구불구불하여 내장이라는 이름도 붙었지만, 안내에 감출장이라는 한자를 써서 무언가 안에 감춘다- 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아주 산세와 지형이 복잡합니다. 내장산 깊숙한 곳, 바로 용굴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습니다.



내장산 이해관

자, 그렇다면 이곳 모형도에서 용굴을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신선봉과 까치봉 사이. 내장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용굴. 바로 이곳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습니다. 많은 유생들이 고심하여 선택한 장소인데요. 아마 유생들도 친구들과처럼 내장산에서 자연을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종종 들렀다가 지리, 지형을 눈여겨 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장산 생태관

혹시, 오면서 눈여겨본, 귀 기울여 본 자연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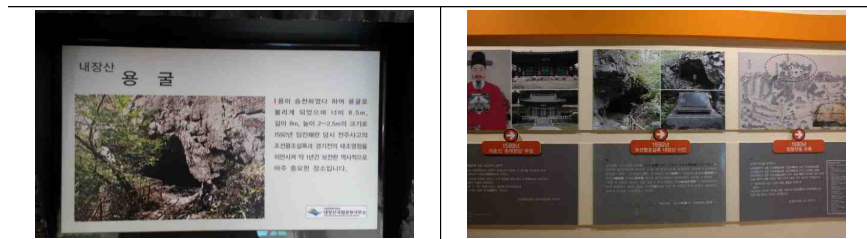
잠깐 자리를 이동하면서 용굴이 있는 주변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용굴이 위치한 곳은 내장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신선봉과 까치봉 사이입니다. 분명히 용굴에 있다보면 재미있는 새소리를 들을 거예요. 바로 이 새소리인데요. 힌트는 까치봉에 많은 새입니다. 무슨 새일까요? 까치? 아니죠. 힌트는 이곳 디오라마에 2마리가 있고요, 까치와 가까이 있습니다. 초성힌트로는 ‘ㅇㅈ’입니다. 빙고! 맞습니다. 산까치라고 불리는 어치라는 새인데요. 어치 옆 물까치도 있고요, 그 옆 까치도 있습니다. 세 종류의 새 모두 같은 까마귀과 새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아까 들려준 울음소리가 특이하다는 점! 어치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곤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 있어서 숲속의 골목대장이라고 불리곤 하지만 귀여운 도토리들을 좋아하는 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치가 발견되는 신선봉과 까치봉에는 어떤 나무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상수리나무와 참나무과가 많이 있어 크고 울창하지요.

옛 기록에 따르면 ‘용굴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크고 울창한 숲에 가려져 찾기가 힘들었다는 점.

깊숙하고 은밀한 용굴. 무언가 숨기기 좋은 천연 요새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한다면 자연은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용굴 모형과 내장산 모형도, 기록을 통해 용굴에 대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실제로 용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잠깐 자리를 이동해서 용굴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용굴 패널

생각보다 용굴이 큰 편은 아니죠? 하지만 이곳에서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유생이 무려 370일간 번갈아가며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이곳 내장산에서 지켜냈다는 기록, 즉 수직일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왕의 기록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 정치를 기록했다는 것. 조선왕조실록을 쉽게 말하면 조선과 왕의 일기와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왕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다룬 책인데요. 얼마나 세세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말에서 떨어진 왕(태종)도 있었고요, 편식을 하는 왕(세종), 고양이를 좋아하던 왕(숙종). 육쟁이 왕

(정조)도 있었대요. 왕의 기록만 있는게 아닙니다. 질투가 심한 왕비부터 안동에서 벼락 맞은 백성까지 기록해두었다는 점.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세상에서 가장 긴 한 왕조의 일기.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진왜란에 한군데 남은 전주사과의 조선왕조실록을 이곳 자연이라는 천연 요새인 용굴에서 지켜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 더, 우리는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왜곡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이 사실인지 모른 채. 역사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잃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록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떤 것인가요? 친구? 돈? 가족? 맞습니다. 모두 제각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는다면 잊혀지기 쉽습니다.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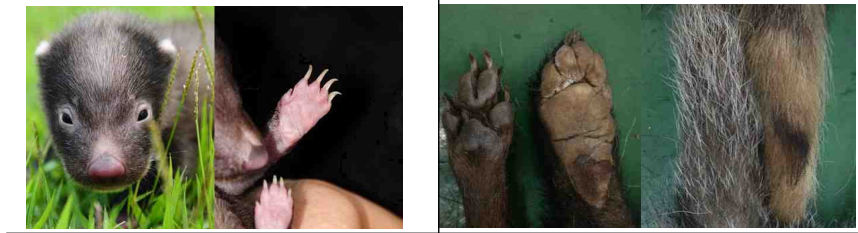
내장산 에너지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서 자연을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익숙해서 왜 소중한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더 좋겠지요? 자연은 왜 소중한 걸까요? 의약품이나 신소재 등을 자연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일까요? 거창한 이유들도 많지만 우리는 공기가 없이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연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니까요. 우리는 자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쯤이야 하며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무가 우리라면? 자연의 일부인 우리 한 사람쯤이야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일부인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됩니다. 자연은 우리와 다르없기 때문이죠. 자신을 소중히 하듯, 자연을 소중히 해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겠죠?

내장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어치도 있었고요. 미션 활동을 통해 찾은 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있는데, 이 사진의 어미를 찾아보겠어요?



오소리와 너구리

어떤 동물의 새끼일까요? 힌트는 바로 옆에 있는 발바닥입니다. 오소리? 너구리? 잘 모르겠다고요? 탐방안내소 내에 있는 오소리와 너구리를 모습을 살펴볼까요?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나요? 오소리는 전반적으로 하얀색이며 겉털의 끝색이 흰색인 반면 너구리는 털끝색이 검은색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족제비 과인 오소리와 개과인 너구리는 발 모습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소리는 특히 앞 발이 잘 발달 되어 있습니다. 산이나 구릉에 서식하면서 앞발로 굴을 파는데 8~10m까지 파기도 해요. 오소리와 같은 족제비과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발가락이 "오" 그래요. 다섯 개라 개과와 구분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너구리는 너 "사" 네 개라는 점. 직접 확인해볼까요?

오소리는 큰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거의 채집생활을 해요. 떨어진 과일, 지렁이, 달팽이, 소형 포유류까지. 특히 과일이 떨어질 시기에는 가족단위로 같이 다녀서 독특한 길을 만들어요. 오소리 다리가 긴것 같나요 작은 것 같나요? 아무래도 짧다보니 배가 닿죠. 가족군 단위로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니다보니 산 속에 작은 길이 생깁니다. 바로 "오솔길" 오소리길의 준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길은 다른 동물들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오솔길이 줄어들고 있는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처럼, 다른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우리는 항상 자연을 보호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을 아껴쓰는 것.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무를 위해 종이, 휴지를 낭비하지 않고 적당히 쓸 만큼만 쓰는 것. 더 나아가 나무를 가꾸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물을 아껴쓰는 일. 물부족 국가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낭비를 하는 것이 물인 것 같습니다. 양치컵 사용, 세수대야 사용! 어렵지 않죠. 더 나아가 샴푸보다 비누를 쓰는 일도 자연환경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 영상실

나만의 실록 만들기

• 광해관 일기?
• 태조실록?

나만의 실록만들기

		 <p>나만의 실록 만들기</p>	 <p>엽서쓰기</p>
		<p>내장산이 숨겨둔 보물. 여러분들 찾았나요? 자연!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 보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나’를 보물처럼 소중히 해야합니다. 나를 아끼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조선왕조실록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실록을 만들어 나와 자연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p> <p>지금부터 나만의 실록을 만들어보도록 할건데요.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약간 다른 이름이 붙은 실록이 있어요. 바로 광해군 일기, 노산군 일기인데요. 이들의 차이는 단지 왕이 쫓겨났는지 아닌지만 다르지 내용이나 양식은 같습니다. 왕이라면 실록, 그렇지 않으면 일기라고 붙여졌지요.</p> <p>지금 나눠준 실록의 앞장과 뒷장을 보면, 앞장에는 우리가 살펴본 내장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뒷장에는 실록의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p> <p>실제로 한 구절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 4년 2월 8일. 이렇게 실록에는 왕이 사관의 눈치를 볼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담았습니다.</p> <p>이제 직접 나만의 실록을 만들어 볼까요. 매듭방법은 전통방식인 오침안정법을 통해 만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섯 개의 구멍에 끈이 풀리지 않도록 끈끼리 매듭을 짓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하도록 하고,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p> <p>다 완성한 친구는 한명씩 와서 엽서와 설문지를 받아주세요. 엽서는 1년 늦게 도착하는 엽서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와 자연을 소중히 하겠다는 지금의 다짐을 쓰면서 기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p>	
마무리	영상실	<p>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좋습니다.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엽서를 발표할 친구 있나요? 좋아요.</p> <p>오늘 역사를 품은 자연, 용굴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용굴을 통해 기록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이 세상에 ‘나’만큼 ‘나’를 오랫동안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나</p>	

		<p>는 뭐먹지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어려운 질문까지. 그러한 질문들은 모두 나를 생각하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 속에 있는 '나'를 소중히 하는 만큼 자연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고맙습니다.</p>
--	--	--